광주청년드림 참가자들 “일자리 생겼어요”

광주시 올 신규 사업 성과
1기 11명 정규직 채용
기업 25곳 정식 고용 계획
2기 드림팀 모집 중

‘광주청년드림(Dream)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취업 성공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광주청년 드림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비용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직업 비전을 찾아가도록 올해부터 시작된 광주시의 신규사업이다.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 미취업과 구직단념 청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등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모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 1기 청년드림팀 140명은 지난 5월부터 84개 사업장과 기관에서 현장 역량을 쌓고 있으며, 지원을 시작한지 현재까지 11명이 정규 일자리를 얻었다. 청년드림사업은 구직역량이 낮은 취업취약 청년층에 대해 다양한 교육을 병행하면서 훈련기관과 직무현장을 바로 연계하면서 기존 일자리 지원사업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또 청년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광주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주 25시간 안에서 일경험 시간을 탄력 선택하도록 해 구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시간을 보장하면서 참여 청년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1기 청년드림팀 운영 기간은 5월10일부터 오는 9월8일로, 지원 종료 후 정식으로 고용할 계획을 세운 기업은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광주시는 집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광주지역 청년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며 “지역사회에서 미래 비전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는 8월 한달 동안 2기 드림팀으로 참여할 청년들을 공개모집하고, 현장 상담을 거쳐 9월1일부터 일경험 현장에 배치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추진 경과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광주청년드림 공식 사이트(http : //gj3dreams.modoo.at)에 게재해 청년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돗자리 깔고 ‘겨울왕국’ 관람
내일 용산생활체육공원

광주시 동구가 오는 5일 오후 7시30분 용산생활체육공원에서 ‘제3회 돗자리 야외 영화데이트’를 개최한다.

이번 상영작인 ‘겨울왕국’은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신비스러운 힘을 가진 언니 엘사와 동생 안나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애니메이션 최초 1000만명의 관객을 모으며 화제를 모았다. 동구는 사전행사로 퀴즈를 풀면 추첨을 통해 영화관람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오후 4시부터는 가족들이 함께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야외 풀장을 개장한다.

지난 6월부터 매달 초 열리고 있는 ‘돗자리 야외 영화데이트’는 체육공원 내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해 매회 1000여명의 주민들이 찾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제4회 돗자리 야외 영화데이트’는 다음달 2일 오후 7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영화 ‘해적’을 상영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무더위쉼터서 더위 피하세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일 서구 서창동 발산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3곳을 찾아 어르신들의 여름나기를 살피고 있다. 시는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폭염피해 대책의 하나로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냉방기 가동상태를 살피고 냉방비 지원 확대, 경로당 시설 개선 등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난해 진행된 예술홍보단 ‘자미울’ 공연. 〈광주시 북구 제공〉

북구 동네 예술단 ‘자미울’ “공연 준비해요”

경단녀·은퇴예정자 20명 참여

광주시 북구는 3일 “지역 이야기와 이슈 등을 공연으로 만들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우리동네 예술홍보단 ‘자미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북구는 경력단절여성 및 은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참가자 20명을 모집, 지난달 4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북구 평생학습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5회차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대본 분석·연기훈련 등 공연 창작, 스토리텔링·대본 완성 등 공동창작, 현장답사방문 등을 통한 북구 관련 이야기 소재찾기 등으로 구성된다.

강사는 마당극 전문예술단체 ‘놀이패 신명’ 대표 정찬일씨가 참여한다.

참가 주민들은 교육과정이 끝난 후 북구 평생학습 페스티벌 참여, 각종 순회공연 등을 통한 지역민들과 만날 예정으로, 북구 마을극단 창단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 1982년 창단한 ‘놀이패 신명’은 지역 마당극의 효시로 꼽히는 ‘고구마’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강기정의 독일이야기

② 집권당이 바뀌어도 정책은 이어간다

탈원전 이룬 ‘메르켈 연정’ 배우자

독일의 운전자들은 정지선을 참 잘 지킨다. 그런데 운전대를 직접 잡아보니 그 비밀이 풀린다. 정지선 밖에 멈춰야만 신호등이 보이도록 돼있다. 결국 모든 일은 제도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속방지턱도 없고, 경찰도 눈에 띄지 않지만 2014년 베를린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1.5명, 광주는 6.4명이다. 지난해 프랑스의 실업률은 10.1%인데 비해 독일의 실업률은 4.1%에 그쳤다. 무역규모는 2조6000억 달러로 유럽 1위다. 독일 정치가 국민들을 불안이 아닌 희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구체적 수치들이다. 독일정치의 어떤 힘이 ‘안전한 신호등 위치’와 같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일까.

독일 정치의 최대강점은 정책의 연속성에 있다. 정권이 재창출되든 교체되든 간에 이전 정권의 정책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대표적 사례가 빌리브란트에서 콜 수상으로 이어진 동방정책, 슈뢰더에서 메르켈로 이어진 ‘아젠다 2010’과 탈원전 에너지정책이다.

1970년대 서독 총리에 오른 빌리 브란트는 동독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동방정책을 편다. 동독의 서독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한편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통일에 유리한 외부조건을 만들었다. ‘접촉을 통한 변화’를 핵심 기조로 삼은 동방정책은 마침내 베를린 장벽에 균열을 낸다. 그 동방정책 성공의 진짜 요인은 정책의 연속성에 있었다.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가 추진했던 이 정책을 기민당의 헬무트 콜이 정파적 손실을 따지지 않고 이어감으로써 독일 통일이 완성된다. 20년 동안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였다.

2003년 사민당 슈뢰더 총리는 우파적 경제개혁안인 ‘아젠다 2010’을 내놓는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복지를 줄이는 등 반발이 큰 정책이었다. 그 ‘아젠다 2010’을 기민당의 메르켈 정부가 이어나갔다. 이 정책유지가 2008년 금융위기를 넘는데 큰 힘이었다고 독일 국민들은 이야기한다. 정책추진에 대한 신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원전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독일까지 날아든 체르노빌의 먼지를 본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운동을 해나갔고, 정당은 이를 정책으로 담아냈다. 또한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연정과 협치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갔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성공은 연정과 협치의 산물이었다.

독일의 연정 전통은 독일 역사만큼 오래 되고 있지만 나치와 분단의 반성에서 더 구체화된다. 극렬한 좌우대립, 승자독식구도의 실패를 통해 연정이 가능한 선거와 정당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냈다. 연정은 독일정치의 건강성을 지키고 정당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지선이자 신호등인 셈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분당과 탈당이 빈번하고 그 회오리 속에서 끝까지 당을 지켰던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독일식 연정은 부럽기 짝이 없다. 연정과 협치가 정치전통으로 자리를 했다면 분당과 탈당도, 정치적 먹잇감을 찾는 정쟁도 필요 없었을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방정부에서도 정책 계승의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시정 주체가 바뀌더라도 좋은 정책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공약을 만들면서 에너지밸리, 친환경자동차,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변함없이 가져가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메르켈이 슈뢰더의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듯, 시민의 몫으로 정책 성과가 돌아갈 때까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기정의 독일이야기〉는 정치인 강기정이 12년의 의정활동을 잠시 멈추고, 베를린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Berlin)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머물며 기록한 독일의 industry4.0, 에너지, 경제, 정치 현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총 10회로, 다음주부터는 매주 목요일자 8면에 연재됩니다.

북구, 삼각동 대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 209, 209-1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대지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리조트 콘도/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 매매 36억
- 온천지구 내 “직업 테마 파크” 등 600억 투자 예정
- 상담문의

H. 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